

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,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 개최

✎ 송덕만 기자 | ⌚ 승인 2025.03.06 09:10

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 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[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(지사장 박승수)는 5일 미래 농업세대인 청년농업인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업 현안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해 폭넓은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.



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가 5일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. [사진=농어촌공사고흥지사]

최근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부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, 현장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체감하는 목소리를 듣고 제도개선, 농지사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.

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대표 청년농, 지자체 농지담당 공무원, 공사 농지은행사업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.

이 자리에서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청년농 지원성과와 향후 다양한 지원방안을, 지자체에서는 인구정책과 농업소득이 연계된 청년농 지원정책을 설명해 청년농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.

청년농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사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적극 지지의사를 표하면서 "농업이 하나의 직업 직군으로 발돋움 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해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줄 것"을 당부했다.

박승수 고흥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농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육해 부농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농 지자체 공사가 힘을 합해 지역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

송덕만 기자 dm1782@naver.com